

독자권익위원회 칼럼

'칭찬'과 사회 변화

박봉순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많은 사람에게 '칭찬'하면 떠오르는 글귀가 있다. 바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활력을 주는 개인적 기쁨의 촉매제를 넘어, 사회와 인간관계를 훨씬 더 연결하는 고리로 작용한다.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다시 사회를 움직이게 하기에 사회 구성 요소의 핵심 장치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어떤 행동이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근현대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요한 볼프강 폰 고트리는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능력은 관계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는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선언이며, 결국 타인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까지 고양되는 긍정의 선순환을 의미한다. 질책과 꾸지람이 아닌 포옹과 칭찬이 자기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행동이 사회적 칭찬을 받을 때 그 행동은 개인의 미덕을 넘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칭찬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메신저인 셈이다.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책임감과 주

도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칭찬의 토양 위에서 자라난 사람은 수동적인 구성원에 머물지 않고, 일과 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사회는 끊임없는 협력 위에서 존재하지만, 그 협력의 과정에는 늘 갈등이 수반된다. 칭찬은 이러한 갈등의 현장에서 신뢰를 쌓아 문제를 예방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으로 역할을 한다.

조직이나 사회가 칭찬에 인색하지 않을 때, 굳건한 규칙이나 관습보다 개인적인 '관계'가 먼저 작동하게 된다. 물론 사회 질서는 통제와 처벌로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에 의한 질서는 막대한 관리 비용과 상호 불신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것이 민주사회에서 칭찬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강압이 아닌 대화와 공감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밝은 사회를 만드는 힘이 바로 칭찬에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언어는 조직을 활성화하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만든다. 때로는 적군을 이군으로, 원수를 원인으로 만드는 힘은 비수가 섞인 말한마디가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칭찬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자기들이 속해있는 소속 정당이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공격과 악담을 퍼부으며 사익을 취하려는 모습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극단의 시대에 칭찬이야말로 정치적 갈등과 불신의 실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묘약이 아닐까 생각한다. 칭찬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다. 칭찬은 법과 제도가 가진 강제력의 한계를 자발

성이라는 에너지로 채워주고 변화를 주는 묘약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칭찬은 사회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문화적 매개체다. 어떤 인물과 행동이 공동체의 박수를 받는가는 그 사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칭찬은 개인의 성장을 돋고 관계의 질을 높이며, 공동체의 신뢰와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작은 말 한마디의 긍정성이 모여 사회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것이다.

선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당근과 채찍'의 비유가 자주 등장한다. 채찍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망과 갈등을 낳는다. 반면 인정이라는 '당근'은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든다.

과거 DJ정부 시절에 학제적 포용의 정신으로 추진했던 '햇볕 정책'의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강하고 차가운 바람은 외투를 벗기지 못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햇볕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쉽게 상대에게 접근하는 양분 같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소가 아니라 서로를 치켜 세워주는 칭찬의 문화다. 작은 말 한마디의 긍정성이 모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이제 비난의 채찍 대신 칭찬이라는 당근을 들어야 할 때다. 칭찬은 개인의 성장을 돋고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숭고한 소통 방식이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아낌없이 박수 쳐주는 '칭찬하는 사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칭찬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서로를 춤추게 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기고

경탄하며 살 수 있는 세상

정홍순



시인(순천향대학교 목사)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한다.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다. 난데없는 계엄선포로 나라 안팎이 꽁꽁 얼어붙은 한 해였다. 하지만 일축족발의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운을 모두가 잘 받아낸 한 해이기도 하다.

통치자의 실정으로 온 나라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다행히 우리의 가치관인 민주주의와 문화, 역사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특히 정치와 종교의 태도를 보았다.

정치와 종교 통하여 '경애'를 금지 못 했다는 것은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린 까닭이었기 때문이다.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정치와 종교의 본연의 의무일진대 서로 결탁하여 이념을 조장하고, 나라를 아지럽힌 사악함을 청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우리나라 정치와 종교의 치명적 치부는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정치와 종교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고 군림하는 교묘한 장치를 쓰고 있는데 속히 끊어내야 한다.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것이 두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와 종교는 '우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무

속이라는 수단을 쓰는 순간부터 부패는 시작되고 온갖 패악 짚이 난무하기 심상이다.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순절한 맹활약한 선생은 무당을 궁궐로 불러들여 푸다거리하고, 무당에게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내릴 뿐만 아니라,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저축미를 1년 만에 거덜 내고, 국사를 유린한 명성황후를 가리켜 '죽을 때 죽을 자리만 잘 만난 요망한 인간'이라고 한탄하였다.

무속이라는 민간신앙의 뿌리를 단박에 도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당정치로 정권을 바꾸는 행위가 있었다 해도 국가의 이념이 될 수는 없었다. 명성황후와 같은 제1, 제2의 요망한 인간들이 척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는 '구안록'에서 "믿어서 더욱더 진리가 밝아지는 것을 신앙이라 하고, 더욱더 어두워지는 것을 미신이라 한다."고 했다. 이는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기에 환희가 없는 것이라 일컬한 말이다.

조화는 무엇인가! 하늘과 땅, 인간과 인간의 옮음의 태도이며 삶이 조화다. 이치를 따지지 않고 믿기 때문에 고등이 대가리마저도 숨바re 받는다.'는 일본 속담처럼 이 나라에 가장 이치가 분명해야 할 곳에 미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것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아무리 거룩한 것도 세월이 지나면 때가 낀다. 이를 '거

룩한 때'라 우긴다 해도 속수무책 해어져 너털거릴 것이 분명하다. 근자에 들어 표독스런 신앙에 적잖이 염증이 난다. '봉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허한 우리의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새롭게 할 수는 없을까. 쓴물이 목구멍을 타고 오르는 날이 많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단 말인가. 금기야 교회가 정치 최전방에 나서서 극단을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괴감마저 든다. 이렇게 타락할 수는 없다. 부패정치에 부패종교나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방기해야 했는가. 참회와 고백이 사라진 뻔뻔스런 시대에 점을 뱉으면 내 얼굴에 떨어질 것이 뻔하다.

이제 널리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상고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하겠다. 눈을 가리는 후세무민(惑世無民) 정치나 종교 행위에 속지 말고 속이지 않는 마음가짐, 즉 모든 것을 타인으로부터 보며 자기 사랑으로 단단해지는 것이다. 세상에는 '경탄'할 일들이 너무 많다. 반면에 '경애'한 일들도 많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인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경탄해보았을까. 보는 것부터 달리 할 수 있는 눈이라면 세상은 '경애'를 '경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바깥을 다정하게 볼 수 있는 눈에 대하여 헬렌 키티는 '눈을 잘 쓰는 법', 앤드레 지드는 '현자는 모든 것을 경탄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알고 살아가는 흐뭇한 세상은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독자투고

젖은 우레탄 주차장 왜 위험한가

눈은 겨울철의 대표적인 낭만거리지만 눈길을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의 소소한 것에서부터의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라면 눈길 운전은 항상 극도의 신경을 써야하는 탓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겨울철 뜻하지 않은 눈길 또는 빙판길 운전 중 노면이 미끄러운 탓에 차기 균형을 잃으면서 이리저리 헛들조경이 되지 않을 때의 아찔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눈길 운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할 장소가 있다.

비로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의 반짝반짝 빛나는 녹색 우레탄으로 코팅 시공된 주차장을 드나들 때다.

특히 눈비가 올때는 주차장 입구가 미끄러워 제일 위험한데 그 이유는 차량바퀴에 물기가 젖어 우레탄으로 시공된 주차장에서는 그야말로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된다. 바닥이 우레탄으로 코팅돼 있어 급제동을 하더라도 생각대로 통제가 잘되지 않을수 있다.

또한 지하철 공사 현장 위에 깔아둔 철재 복강판과 같은 곳도 우레탄 코팅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미끄럽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김대형 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사설

광주 경제단체 합동 신년인사회 '눈에 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불·붉은색을 뜻하는 병(丙)과 '말'을 의미하는 오(午)가 결합한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다.

붉은 말은 강인함, 속도, 열정, 정면 돌파를 상징한다. 즉, 도전과 성취가 중요한 테마인 해라는 것이다.

새해 벽두, 광주·전남 주요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눈에 띈다.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경찰총협회를 비롯해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기관이 함께 하는 '2026년 노사민정 합동 신년인사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조찬 형식의 '희망 떡국 나눔', 10개 경제단체·기관의 신년 인사와 세배, 퀴 케이크 절단과 주요 내빈 신년사, 덕담 순으로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공공·출연기관장, 회원사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하는 협회·단체는 광주경찰총협회, 광주시건축사회, 광주전남 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중소기업융합회 광주전남연합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광주지회 등이다.

특히 매년 협회·단체·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신년행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로 통합해 개최한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 경제계 결속과 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신년 행사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을 한해 광주지역 경기 전망은 예측 불가 상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소비 위축과 건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 현실화,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쳐면서 복합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이끄는 단체 대표들과 노동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수장까지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올 한해, 붉은 말의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광주회생법원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 기대

오는 3월 문을 여는 광주회생법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법인 및 개인 회생·파산, 면책 등 이른바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처벌'이 아니라 '재기'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어서다.

광주와 전남, 전북과 제주까지 관할하는 광주회생법원은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광주와 전주, 제주지법에는 매년 2만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민사사건을 병행하고 있는 지방법원 파산부가 맡아 전문성과 속도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광주지법은 관련 사건이 2022년 8600여건에서 최근 1만건 가까이로 빠르게 늘었지만 전담 재판부가 없어 기업회생 사건의 경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거나, 개인회생·파산 사건도 개시 결정과 인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일쑤였다.

반면 서울, 부산, 수원 등 3곳에 있는 회생법원은 판사와 실무 인력이 회생·파산 사건만 전담해 전문성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통장 사건처리가 1년 이상 경기화되는 지방법원 파산부와 달리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서 4.7개월, 수원 5.2개월, 부산 5.5개월 등으로 지방법원보다 빨랐다.

또 실무준칙 또한 비교적 명확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지방법원과 달리 판례 예측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 중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린 비율인 회생 개시률이 2023년 전국 평균 86.7%인데 반해 서울회생법원은 91.7%로 가장 높았다. 개시 후 인가율도 전국 평균이 88%인데 서울은 92.2%나 됐다.

회생법원 신설은 단순한 사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와 직결된다.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과 채권자 권리 조정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회복 장치'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다시 말해, 재판이 지연될수록 생사 기로에 놓인 기업은 존속 가능성은 없고, 개인은 채무 부담에 짓눌려 경제 활동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광주회생법원이 앞으로 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돋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

● 광남일보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박亨 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동로 254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우편번호 61234	산 일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대표전화 (062) 370-7000	사 업 국 370-7090
대표전화 (062) 370-7000	문체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팩스 (062) 385-5400	독자관리국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면 접 부 370-7082	서 울 지 사	370-705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